

日本의 對韓殖民支配의 基調로서의 同化政策 이데올로기

金雲泰*

<目次>	
I. 「日韓同祖論」으로 불리우는 韓國史觀	다는 韓國史觀
韓國史觀	III. 征韓論
II. 主體的 發展性을 缺如하고 있	IV. 大東合邦論

日帝의 對韓殖民政策의 基本을 이루는 同化政策은 日本의 古代國家形成以來에 歪曲된 韓國史觀에 根底한 것으로서 그 代表的인 것으로 日韓同祖論, 主體的 發展의 缺如論(他律性論, 停滯論), 征韓論 및 大東合邦論 등을 들 수 있겠다.

I. 「日韓同祖論」으로 불리우는 韓國史觀

日韓同祖論은 日本人과 韓國人은 同一한 祖上, 同一한 根源을 가진 血緣的 連帶가 있는 동시에 古代의 日本은 韓半島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日本과 韓國 사이에는 家長과 家族員의 關係 또는 本家와 分家의 關係가 있다고 생각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日本人이 朝鮮에 가서 朝鮮人이 되고 日本神이 朝鮮에 옮겨가 朝鮮神이 되고 또 日本人이나 日本神이 朝鮮의 國王과 建國神이 되고 朝鮮人은 日本에投降·歸化하여 日本人이 되고 天皇의 世上이 되어서는 「친고고우고」(神功皇后)가 三韓征伐을 하여 朝鮮을 臣從시키는 등 朝鮮은 太古以來 日本에 服屬하고 있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바 神功皇后의 「三韓征伐」이라든가 「任那日本府」에 의한 韓半島支配說등은 이러한 見解를 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古代日本의 朝鮮支配라는 歷史意識은 日本의 古典인 「古事記」, 「日本書記」 이후 日本人의 意識속에 뿐만 아니라 存在하여 왔다. 그리고 戰後에는 廣開土王陵碑文研究에서 “古代日本이 朝鮮에 上兵하여 新羅·百濟를 臣民으로 하다”라고 엇대로 解釋을 하여⁽¹⁾ 그것을 正當

* 서울大校 行政大學院 教授

(1) 이에 대해서는 李進熙氏는 日本의 軍事探偵과 參謀本部등이 碑文을 日本에게 有利하도록 變造하였다고 주장하고(『廣開王陵碑の研究』, 1972), 金錫亨氏는 任那日本府를 否定할 뿐더러 一步 나아가서 古代 朝鮮의 分國(一種의 植民地)이 日本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三韓·三國의

化하는 材料로 삼아 왔다. 日韓同祖論은 특히 德川幕府 末期의 征韓論, 明治時代의 征韓論, 朝鮮合併 日帝植民地支配下의 同化政策 등에서 강조되었으며 日本內에서 明治, 大正, 昭和 各時代의 歷史教科書에 까지 채택되어 日本國民의 意識속에 널리 뿐리박혀 있는 것이다.

古代日本의 朝鮮支配를 想定하는 「日韓同祖論」은 韓國에 대한 日本의 優越的 地位를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편파적 意識은 日本의 古代·中世를 거쳐 德川幕府(17世紀初—19世紀中葉)時代에도 계속되었다. 朝鮮前期의 李退溪등 우리 學者와 學問을 높이 評價하고 尊敬하던 日人 儒者「후지와라」(藤原惺窓), 「하야시라상」(林羅山), 「야마사카안사이」(山崎闇齊)등 多數들도 日本建國의 說話에 緣由한 日本의 優越的 偏見에 관해서만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有했다 한다.⁽²⁾

마침 韓府末期의 1850年代에 歐美列國의 艦船이 來航하자 日本人은 先進列強의 外壓으로 인한 危機意識을 갖게 되면서 朝鮮에 대한 關心이 높아졌다. 그 關心은 列強의 侵略에 對抗하여 日本을 방어하기 위하여 朝鮮 기타의 아시아諸國을 列強에 앞서서 先取하여야 한다는 侵略的 國防意識으로 번졌다.⁽³⁾

이러한 外壓의 危機 속에서 古代의 「日韓同祖論」을 되살려 朝鮮攻略을 선동하는데 앞장선 것은 學問的 良心도 學者的 素養도 없는 소위 日本의 「國學者群」이었다. 「가쓰가이슈」(勝海舟)는 유럽人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諸國의 聯合이 必要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朝鮮과 聯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면서 朝鮮이 日本의 要望을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征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의 배경에는 朝鮮은 本來 日本의 屬國이었다는 觀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또 「요시다쇼잉」(吉田松陰)은 「幽因錄」에서 “朝鮮을 責하여 日本에 質을 바치고 貢物을 바치게 함으로써 옛 盛時와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히라노」(平野國臣)는 「回天管見策」에서 “우선 三韓을 특별하여 다시 「미마나」(任那)에 府를 建立하고 다시 先規에 복귀시키자”고 主張하여 한결같이 古代의 朝鮮支配를 再現하자고 선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發想法은 明治維新 以後의 征韓論으로 나타났고 或은 韓末以來의 日帝植民時代로 傳承되었다.

「日韓同祖論」은 日本의 韓國支配, 특히 「韓國合併」과 同化政策을合理화시키는데 강력한 理論의 背景으로 표방해온 것이다.例전대 御用國學者중 言語學의으로는 總督府의 비호하에 「가나사와」(金澤庄三郎), 「네구」(鈎貝房之進), 「마에마」(前間篤作), 「고구라」(小倉進平)

日本列島內分國에 관하여 1963년 발표), 日本學者 중에서도 中孫明, 佐伯有清, 旗田巍 등은 疑義를 提起하고 있어 韓·日 史學界의 주요한 研究課題가 되고 있다.

(2) 旗田巍, “朝鮮觀의 傳統”, pp. 12~14.

朴重國, 「韓國思想史論叢」(儒學篇), 서울: 瑞文堂, 1983, p. 95.

(3) 林平, 「三國通覽 圖說」, 1785년에서 朝鮮은 琉球·蝦夷와 함께 日本國防에 깊은 關係가 있으므로 朝鮮研究의 긴급성을 제창했다. 山木饒(編校), 「林子平全集」(第2卷), 學藏會編生活社刊, 昭和 19年. 또 佐藤信淵, “宇內混同秘策”에서 朝鮮攻略에 관하여 具體的 作戰이 論及되고 있다.

등 韓國語 研究者들이 韓日兩國語가 같은 系統이란 論據로서 日韓同祖論에 봉사했고 東京大教授 「호시노」(星野恒)는 「歷史上으로 본 日韓同域의 復古와 確定」이라는 論文으로 「合併」을 正當화하였다. 당시 日本御用歷史家들의 見解는 「요시다네이기지」(喜田貞吉)의 「韓國의 合併과 國!」(1910)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冊은 日韓이 同種이라고 前提한 다음 韓國合併은 '分家의 本家에로의 復歸'라고 날조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古代의 韓國人은 日本天皇의 支配下에 있었다고 하는 歪曲된 謗辭을 植民地支配下에서는 同化政策의 觀念的 武器로서 日本人뿐만 아니라 韓國人 兒童에게도 주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古代의 韓・日關係는 단순히 古代史학의 問題가 아니라 韓國殖民統治에 직접 聯關된 現實의 인 이데올로기 問題였다.

그러나 『韓同祖論』이나 「古代日本의 朝鮮支配」라는 說은前述한 「廣開土王陵碑의 研究」를 통해서 日本學界에서 조차 再檢討되고 動搖되고 있을 뿐더러 日本의 東洋史系統의 朝鮮史研究者들로부터도 批判을 받고 있다. 이들은 中國의 古典을 主體로 하여 古代의 東洋歷史를 고찰하면서 日本古與의 記載가 誤謬임을 指摘하고 있으며 그리고 日韓同祖論은 學問的으로도 成立되지 않음을 論證하고 있다.⁽⁴⁾

眞實은 研究를 통하여 밝혀지게 마련이다. 古代의 韓・日關係의 實態가 韓・日・中 東洋三國의 學界의 合同研究로 하나씩 解明될 것이 期待된다.

II. 主體的 發展性을 缺如하고 있다는 韓國史觀

韓國은 『시아大陸에 붙어 있는 半島로서 大陸에서 밀려오는 巨大한 外壓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바다를 건너 밀려드는 海洋勢力의 威壓을 받아 韓國人은 自主的, 在內的 發展을 이루지 못하고 主體的인 歷史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韓國史의 他律性論이 日帝의 植民地支配의 한 口實로서 指摘되어 왔다. 韓國의 歷史上의 後進과 落後를 주장하는 停滯論이나 歐美를 예찬하고 아시아諸國의 後進性을 주장한 脱亞論, 그리고 朝鮮의 主體性을 否定하면서 鮮滿不可分論을 내세우는 滿鮮史觀도 他律性論과 관련된 植民支配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他律性論에서는 文化的으로 外來文化 특히 中國文化에 압도되어 그것을 모방하였을뿐 獨自的文化를 創造할 수 없다고 한다. 그 代表的 例로서 「미지나쇼에이」(三品彰英)의 「朝鮮史概說」에서는 韓國史의 特色을 「他律性」으로 보고 그 展開를 說明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韓國은 半島性을 가지고 있어서 「半島의 附隨性, 周邊性, 多樣性에 의한 事大主義의

(4) 日本의 東洋史・朝鮮史 研究者로서 白鳥庫吉, 那珂通世를 비롯하여 滿鮮歷史地理調查室에 관여 한 津田左右吉, 池田宏, 稲葉岩吉등이 그 代表的 學者이며, 이들은 滿鮮不可分論을 제창하는 立場으로서 日韓同祖論을 否定하는 한편 朝鮮歷史의 本體性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 「歷史의 性格」이 韓國國史의 根本性格이라는 地理決定論의 植民史觀을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韓國人의 精神構造에 대하여도 「他律的 權威」에 의탁하여 자기를 主張할 때로이며 自主性이 缺如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마니시다즈」(今西龍)를 비롯해서 수많은 官學者들이 韩民族은 「事大的」이므로 日帝統治를 忠당 받아야 한다는 結論을 이끌어 내기 위해 韩國史의 史料 속에서 韩民族의 缺點, 弱點을 뒤지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나바이와요시」(稻葉岩吉)는 「滿鮮史體系의 再認識」에서 滿鮮不可分論의 입장에서 韩國이 대한 大陸勢力의 壓倒的 影響을 강조하고 韩國史를 大陸勢力이 反復하여 拿나드는 과정으로 歷史로 把握하고 있다.

이상 論及한 日人學者들은 韩國史의 主體的 發展을 明確하게 否定하고 있으나 이는 韩民族이 歷史上 無數한 外侵이 있을 때마다 國難을 극복하여 民族主體性을 계승해온 事實을 外面하는 「도그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日帝가 植民支配를 하기 위해서 韩國史를 分明히 歪曲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歪曲은 中華의 儒教文化圈에 있는 서의 事大秩序나 朝鮮朝의 黨派性的 逆機能을 과장하는 가운데 自主能力을 否定하는데에서도 나타났다. 사실 韩民族이 過去 外來文化를 受容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形式上의 모방이 아니라 그것을 韩國的 視座에서 再創造하여 韩國儒教, 韩國佛教의 獨創性을 간직하였다. 또 過去 빈번한 外侵의 도전을 받는 地政學의 與件下에서 外敵에 저항하기 위하여 中央集權의 官僚國家體制를 形成하여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韩民族의 歷史를 大陸勢力에 압도된 主體性이 缺如된 他律史라고 보는 日本人의 觀點은 不當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政治가 安定되고 民族文化가 伸張되었던 朝鮮朝前期에 있어서는 韩國은 日本보다 文化的 先進國으로서 우리 文化가 日本에 소개되고 日本은 韩國의 儒學과 學者를 尊敬하고 韩國의 儒學을 배워 그들自身의 學問을 形成하였으며 朝鮮版의 書籍도 많이 普及되고 復刻 刊行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朝鮮學問에 대한 尊敬心도 軍國主義 日本의 近代 民族主義의 痘理發作으로 말미암아 日本人의 意識으로부터 어느새 사라지고 明治前期의 所謂 「후구사와 유기자」(福澤諭吉)의 「脫亞論」 또는 明治末期의 「후구다도구소」(福田徳三)의 소위 「封建制度缺如論」·「藤原氏時代論」등의 여러 形態로 이른바 停滯論이 강조되며 되어 朝鮮社會가 歷史上 停滯·落後되고 있었다는 日本人의 傳統的 認識은 오늘날까지 日本學界에 계속 전파되면서 日帝의 植民地支配를 美화하는 有力한 學說이 되었던 것이다.

脫亞論의 發想은 1885년에 「후구사와」(福澤諭吉)의 西歐文化受容의 理論인 「文明開化論」에서 처음 提起되었다.⁽⁵⁾ 日本은 이미 德川幕府末期에 Perry提督이 이끄는 異樣船의 來航으로 開國하면서 西歐諸國에게 강요당한 不平等條約을 이번에는自身이 加害者の 입장에서

(5) 류숙현, 「韓國近代政治史」, 正音文化社, 1984, pp. 37~44.

西歐諸國이 마지막까지 열지 못한 韓國의 鎮國을 軍事的 壓力으로 여는데 成功하여 江華島條約을 체결함으로써 韓國에 대한 經濟的 侵略의 基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日本의 對韓文化政策의 底邊에는 항상 東北亞儒教文化圈 속의 國際秩序에서 中華主義의 政治文化의 主役을 漢族과 함께 담당하여온 韓民族에 대한 그들 自身의 「周邊人」의 劣等感과 自己卑下的 인 「글플렉스」를 西歐外來文化의 앞잡이가 되어 文明開化=資本主義化=西歐化라는 直線的發展코스를 唯一最上の 目標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所屬했던 傳統的 儒教文化圈을 謀反하고 공격하는데서 張狂을 느끼는 自虐的 心理가 잠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劣等意識과 自虐的 痘症의 글플렉스가 軍事力を 배경으로 한 侵略政策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친인하게 外國文化 특히 韓國文化侵脫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이미 日本은 明治初부터 西歐文化의 受容方式에 있어서 「海外雄飛論」, 「近隣諸國侵略論」 등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富國強兵의 手段으로 開化의 方略을 세운바 있었다. 國家發展의 理念型과 文化價值의 基準을 걸리 西歐의 그것에다 두고, 西歐化하지 않는 나라는 모두 「野蠻」이라 規定하여 文明開化에 반대하는 나라는 武力으로 억압해도 무방하다는 帝國主義의 軍事侵略을 正當화했다. 이러한 反西歐的이고 反開化的인 아시아 諸國(특히 支那와 朝鮮을 지칭)중 日本만은 그 野蠻的 隊伍를 벗어나 西歐에 끼어야 한다는 것이 福澤의 脫圈을 동상하는 脫亞論이다. 그에 의하면 日本은 이미 아시아의 固陋를 벗어나서 西洋文明에 옮아갔기 때문에 支那, 朝鮮 등 東北亞의 이웃나라의 開明을 기다려 共히 아시아를 일으키게 할 유를 갖지 못한다. 이들과 이웃이라 해서 特別한 配慮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西洋인이 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쳐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福澤의 主張은 日本文化가 東北亞의 東邊에 위치하고 있다는 소외의식을 基盤으로 해서 文明化=西歐化라는 위험한 發展觀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후구사와」(福澤諭吉)의 脱亞論은 近代日本人의 思想形成에 있어 큰 役割을 수행했으며 日本人의 亞細亞觀 내지 朝鮮觀에서도 福澤氏의 사상이 직접 또는 間接으로 크게 作用하였고 그것은 현재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專門家들의 見解이다.⁽⁶⁾ 원래 日本에는 朝鮮과의 同文·同種을 믿는 「日韓同祖論」의 意識이 있었음은前述한 바이나 福澤는 그러한 발상에는 하등의 價值도 認定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며 아시아의 後進國과 상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日本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脱亞의 位置에서 日本의 大陸政策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후구사와」(福澤)의 初期의 주장에는 小國民族主義라고 할 수 있는 意識이 있어 江華島事件에서는 過激民權派의 出兵論에는 反對하는立場에 있었다. 그러나 日本의 朝鮮侵略이 점차 現實으로進行되면서 적극적 간섭을 주장하고 특히 壬午軍亂 이후에는 맹렬한 干涉論을 제창하였으며 甲申政變 당시에도 그는 강력한 干涉論을 주장하여 清과의 戰爭도 不辭하여야 한다고

(6) 旗田義、アジアアフリカ講座 Ⅲ, pp. 29~31.

政府를 격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뒤 1885年「時事新報」에 發表한 「朝鮮人民을 위하여其國의 滅亡을 贺함」이라는 論文에서는 ‘朝鮮政府는 人民의 生命과 財產을 보호할 能力이 없으므로 人民에게는 차라리 朝鮮이 露西亞나 英國등의 外國에게 점령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外國政府에 滅亡되는 것은 亡國의 民으로서 심히 안된 일이지만 前途에 希望없는 「구개」(苦界)에 침몰하여 종시내외의 모욕속에서 죽느니 보다는 오히려 強大文明國의 保護를 받고 적어도 生命과 私有만이라도 安全히 하는 것이 不幸中의 幸이 될 것’이라고 畏言한 바 있다.⁽⁷⁾ 이와 같이 그는 朝鮮의 自主的 開化에는 期待를 걸지 않고 強大文明國의 占領·保護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文明을 빙자한 侵略을 공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底意에 朝鮮은 自力으로 文明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論理라면 그의 韓末開化派에의 援助도 결국은 日本의 朝鮮支配의 手段이 되지 않을 수 없는 事이었다. 그리고 福澤은 西歐人들이 支那, 朝鮮등 아시아諸國을 대하는 것과 같이日本人도 치신하여야 한다고 妄言을 弄하고 있으나 결국 脱亞를 통해 아시아를 背反하겠다는 自己謀反을 놓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福澤의 脱亞意識은 그가 死亡(1901年)한 후에도 弱化되지 않고 오히려 日本의 大陸侵略의 擴大와 함께 強化되었다. 당시 日本의 學問, 思想까지도 脱亞的 傾向을 띠고 發展하였다 할 수 있으며 특히 1887年(明治 20年)代부터 日本에서 盛行한 朝鮮에 관한 學術的研究에서 그 脱亞의 傾向이 顯著하였다. 그 한 代表의 例로서 朝鮮經濟의 研究를 통하여 學界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는 福田德三의 「封建制度缺如論」을 들 수 있겠다.⁽⁸⁾

「후구 다도구소」(福田德三)는 1902年(明治 35年) 여름 朝鮮을 旅行하여 朝鮮의 實狀을 見聞하고 동시에 資料를 수집하였으며 그 見聞, 資料에 立脚해서 1903年부터 1904년에 걸쳐 「韓國의 經濟組織과 經濟單位」라는 論文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論述된 것은 韓國의 經濟組織과 經濟單位를 經濟發展段階論에 의기하여 그 水準을 考察할 때 韓國은 封建制度가 成立하기 이전의 段階로서 日本과 比較하면 현저히 落伍되어 있어 平安朝의 藤原氏時代의 段階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平安朝時代論 또는 封建制度缺如論은 그후 그대로 日本人의 韓國經濟史研究에 受容되어 왔다.

福田德三是 이미 「日本經濟史論」이라는 그의 著書에서 日本經濟史의 發展過程이 西歐의 그것과 同一한 經過를 거쳐 東洋諸國과는 달리 西洋과 같은 歷史를 가지고 있다고 論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하여 明治以後의 日本의 進步가 단순한 西洋文明의 모방이 아니고 그것을 임태할 歷史的 根據가 日本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發想은 西洋의 歷史의 經濟發展過程을 基準으로 해서 거기에 日本의 歷史를 맞추어 보아 그 發展水準을 測定하려는 것으로 결국 脱亞論의思考라고 할 수 있다. 福田은 이러한 思考를 土臺로 朝鮮經濟의 現段階

(7) 福澤全集(第5卷)「時事小言」, 第3編, 政權之事, pp. 353~355.

(8) 金承桓, 「韓國近代政治史」, 正音文化社, 1983, pp. 42~49. 참고.

를 分析한 3이다. 그는 朝鮮의 政治組織, 社會組織, 土地所有關係, 商業機構, 工業形態 등을 檢討한 후 朝鮮經濟의 現저한 後進性을 指摘하고 그 後進性의 根源으로서 封建制度의 缺如를 指摘하였다. 그의 論法은 西洋近代社會를 가져오게 한 것은 封建制度로서 그 存否가近代化發展의 可能與否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日本은 西洋과 같은 封建制度를 가졌기 때문에 近代社會에서 發展이 可能한데 비하여 朝鮮은 封建制度成立 以前의 极히 幼稚한 段階에 있었기 때문에 近代的 社會에의 自主的 發展을 期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福田은 이와 같이 朝鮮의 自主的 發展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그 任務를 담당하는 것은 日本의 使命이라고 하면서 朝鮮의 開發에 있어서는 그 古來의 傳統, 風習 등은 둘 블 必要가 없으며 破壞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土地와 人間을 놓은 傳統的 社會로부터 解放하고 土地의 私有化, 資本化, 勞動者와 企業家와의 階級分化를 촉진할 것을 主張하고 日本人이 수행하여야 할 使命은 '腐敗衰亡의 極에 달한 民族의 特性을 根底로부터 소멸시키고...' 日本自身에 同化시켜야 할 自然的 命運과 義務를 가진 「有力優勢한 文化的 使命의 重大함을 擔任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福田은 「有力優勢한 文化」를 가진 日本은 朝鮮의 傳統的 社會를 解體하고 民族의 特性을 消滅시켜 植民地化하고 日本에 同化시킬 使命이 있다는 妥言을 놓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福田의 論文은 事實은 短期間의 朝鮮旅行 見聞과 亂약한 資料에 의거한 拙作으로서 矛盾투성이이다. 그러나 이 論文이 그 후의 朝鮮研究에 미친 영향은 큰 것이었다. 韓國史와 日本史를 比較研究하는 日本人學者는 누구나 韓國이 日本보다 수백년 혹은 천년 정도나 뒤졌다고 주장하였으며 日本人에 의한 朝鮮經濟史의 研究는 거의 이 論文을 出發點으로 해서 추구되었던 것이다.

福田의 이와 같은 論據는 西洋近代文明을 最高의 基準으로 간주하여 그것과의 距離를 測定해서 優劣를 論하는 脱亞論의 方法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 方法에 따르면 日本의 先進性과 朝鮮의 後進性 또는 停滯性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史展開에 있어 高麗朝나 朝鮮朝는 集權的 體制였기 때문에 封建制度가 缺如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西歐型의 分權的 封建制로서 보편적 形態를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朝鮮朝의 경우만 해도 封建制 要素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 實證되고 있으며 朝鮮朝의 發展段階를 集權的 封建制로 規定할 수 있다고 본다.⁽⁹⁾ 또 이러한 集權的 封建制는 韓末의 開化運動에서 自主的近代화의 可能性을 증명한 바도 있는 것이다. 戰前의 日本政府나 日人學者들이 '朝鮮朝時代'나 '日本殖民統治時代'에 이르기까지 韓國의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廣範圍한 분야에 걸쳐 매우 後進·落後되어 있었다고 굳이 강조하여 온 것⁽¹⁰⁾은 결국 日本의 植民統治를 韓國人の 生活과 文化的 향상에 공헌한 것으로 美化하기 위한 意圖에서 나온

(9) 拙著,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 全訂版, 博英社, 1981, p. 20.

(10) 日本政事大藏省管理局編, 「日本人の 海外活動に 關する 歷史的 調査」(朝鮮篇), pp. 36~98.

것이라 하겠다.

III. 征韓論

徳川幕府時代에 日本人은 朝鮮에 대하여 優越感 또는 輕侮感과 함께 尊敬心도 커서 相反하는 意識을 품고 있었다. 朝鮮에 대한 優越感 또는 輕侮感은 日本人이 古來로 품고 있었던 것이나 특히 日本의 國學者들이 가장 강력히 주장해온 日本의 古典의 내용을 믿는데서 오는 偏見에서 基因한 것으로 그들은 太古時代에 日本의 神과 天皇이 朝鮮을 支配하였고 朝鮮은 屬國으로서 그 王이나 貴族은 日本에 服屬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한편 朝鮮에 대한 尊敬의 意識은 日本의 일부 學界에서 朝鮮의 優秀한 學問과 儒學者를 존경하고 아울러 幕府의 朝鮮에 대한 友好的 政策에서 짹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마침 德川幕府 末期에 이르러 歐美列強의 艦船이 來航하여 日本이 外壓에 의한 危機意識을 품게 되자 朝鮮에 대한 態度에 큰 變調가 나타났다. 당시 日本의 國防問題를 처음 제기한 「하야시 해이」(林子乎)는 1785년에 「三國通覽圖說」을 저술하고 거기서 朝鮮은 琉球·朝鮮와 더불어 日本의 國防에 깊은 關係가 있으므로 朝鮮을 研究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契機가 되어 日本內에는 列強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國防上의 見地에서 朝鮮을 보는 意識이 퍼지고 나아가서는 日本의 防禦를 위해서는 朝鮮을 비롯 其他의 아시아 諸國을 列強에 앞서서 攻略하여야 한다는 意識을 낳게 하였다. 「사도노부부지」(佐藤信淵)은 「宇內混同秘策」에서 「皇國」의 支那國, 滿洲國과 더불어 朝鮮國의 武力攻略을 제창한 바 있고 「요시다쇼잉」(吉田松陰), 「하시모도」(橋本左内), 「히라노」(平野國臣) 등 國粹主義者들은 國防의 充實과 아시아 進出을 主唱하면서 朝鮮攻略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쓰가이슈」(勝海舟)는 유럽人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세아諸國의 連合이 必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韓에 征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朝鮮征略論에서 注目할 것은 朝鮮은 古來로 本來 日本의 屬國이었다는 偏見이었다. 幕府末期에 여러 日本知識인이 제창한 海外雄飛論은 곧 아시아侵略論으로서 그것은 外壓에 의한 危機意識에서 派生된 實現可能性이 없는 당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明治維新以後에 그것은 日本政府首腦部에 의하여 채택되어 實現性 있는 政策論으로 발전하였으니 여기서 나타난 것이 征韓論이었다.

日本政府首腦로서 征韓論을 제발리 제창한 者는 「기도다가요시」(木戸孝允)이었다. 그는 明治元年(1867年) 12月 14일의 日記 속에서 「使節을 朝鮮에 파견해서 그 無禮를 문책하고 그가 만약 不服할 때는 罪를 물어 그 領土를 공격하여 크게神州의 威光을伸張하기를 바란다」고 쓰고 있다. 그 뒤에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마침 朝鮮에의 使節派遣를 内閣에 提案하였으며 그의 提案으로 日本政府는 明治 3年(1869年) 10月에 使節을 朝鮮에

파견해서 國王의 회복을 要求한 바 있다. 당시 日本政府의 外務卿 「사와요시노리」(澤宣嘉)는 그의 惠見書에서 「韓國은 上古「스사노」(素尊)親征의 靈跡으로서 列聖綏撫의 國家로서 그 國脈의 淳長如何는 우리 國家安危에 관한 바이다. 하물며 近來 露國이 탐내고 있는 狀態에 있어 우리 帝國이 이를 匡救하지 않으면 그 存亡을 알 수 없다. 此際에 日本政府가 朝鮮에 使節을 파견하는 것은 진박한 最大의 急務이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는 朝鮮은 上古以來로 1本의 屬國이었기 때문에 露國이 약탈하지 않은 중에 制壓하여야 할 國家이지 對等한 國交를 체결할 만한 相對로서는 전연 考慮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日本政府의 外務擔當責任者로서 표명한 것으로 注目이 된다.

당시 朝鮮에서는 大院君이 政權을 장악하여 鎮國攘夷政策을 고수하였으므로 日本의 國交恢復의 提案을 거부되었다. 이때 使節로서 朝鮮에 파견된 「사다소이지로」(佐田素一郎)(白茅)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彙國하자 政府에 提出한 建白書에서 격렬한 征韓論을 주장하였다. 그는 「朝鮮은 皇國을 蔑視하고 文字에 不遜하다 하여 耻辱을 皇國에게 보였다. …실로 不俱戴天의 憤賊이므로 必히 이를 征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우리 30大隊를 出征시켜 그의 巢窟을 유린하면 朝鮮은 곧 봉괴와해될 것이다」라고 하는 난폭오만한 議論을 토로할 정도였다.

그리고 당시 佐田과 朝使로서 同行한 「모리야마시게로」(森山茂)는 日本內의 50萬의 不平士族을 韓半島에 移植시켜 內亂의 要因을 外部로 轉向시켜야 한다는 豐美있는 征韓論을 주장하였다. 즉 森山은 「今後 다시 朝鮮과 談判하여 만일 듣지 않으면 50萬의 士族을 動員해서 朝鮮에 친주시켜야 한다. 이제 明治維新의 大業은 이룩되었으나 四方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者들이 英氣를 복돋으며 變亂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故로 이 機會에 不平士族을 韓半島에 移植한다면 內亂을 外部에 轉向시키는 길이며 동시에 國利를 海外에 開拓하는 기초이다. 이는 「… 一舉兩得의 策이 아닌가. 韓國을 討伐하는데는 汽船 軍艦은 必要없으며 다만 武士들이 輕船에 타고 海峽을 횡단하는데 一任하면 된다」는 要旨의 삭다른 征韓論을 제기한바 있다.

이상 論及する 木戶, 澤, 佐田, 森山 등의 征韓論의 背後에도 朝鮮은 上古以來로 日本의 屬國이며 朝鮮에 대한 日本의支配的이고 優越的인 地位는 自明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며 이와 같은 發想樣式은 日本의 歪曲된 神話, 傳說 및 歷史 등에서 源源한 것으로 그 후에도 오랫동안 朝鮮侵略을 正當화하고 고무하는 日本人의 意識構造로서 뿌리박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上述한 木戶등이 제창한 朝鮮侵略論을 곧 「사이고다까모리」(西郷隆盛)가 주창한 遣韓大 趟論으로 발전하여 日本政府首腦部 사이에 大論爭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論爭은 결국 西郷를 비롯해서 西郷를 支持하는 「이다가끼다이스케」(板垣退助), 「고도오쇼지로우」(後藤象二郎), 「고도신베이」(江藤新平), 「후구치마」(副島種臣) 등 參議를 辭職하였으며 그 餘波는 여러 地方藩間의 內亂과 西南戰爭을 유발하고 또한 自由民權運動의 展

開를 가졌다. 이들 西鄉派의 征韓論의 根據는前述한 木戸등의 征韓論과 큰 差異는 없었다. 즉 從來의 海外雄飛論에다 不平武士群의 海外排出을 위한 戰爭論이 결부된 것으로 그것은 外壓의 危機意識에다 國內內亂의 危機意識이 겹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日本과 가장 近接하고 列強의 힘이 아직 미치지 않은 朝鮮에 대하여 先手를 써서 侵略戰爭을 도발해서 日本이 支配下에 장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征韓論을 주장한 西鄉一派는 「이와구라도모오」(岩倉具雄), 「오오구보도시미쓰」(大久保利通) 등의 反對論者들에게 敗北하여 下野하였으나 이들 反對論者들도 征韓 그 自體를 根本적으로 反對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征韓에 있어서 時期와 方法에 있어 見解差異가 있었다 특히 征韓의 指導權을 둘러싼 政爭에 불과하였다 것이다. 反對派인들 朝鮮과의 平等·互惠의 國交를 念頭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果然 이 政爭이 종식되고 약 6個月 後 明治 7年(1874年) 4月에 大久保, 岩倉의 日本政府는 臺灣에 出兵하여 이를 征服하였으며 그 다음해 明治 8年(1875年)에는 江華島事件을 도발하여 武力を 배경으로 開戰도 불사하는 강경 담판을 단행한 것이다. 여기서 丙子年(1876年)에 거의 강제적으로 체결된 江華修好條約은 領事裁判權과 關稅免除 및 日本貨幣의 使用을 公認하는 등 全的으로 不平等條約이었다. 설사 條約本文 第1條에서 「朝鮮國은 自主國으로서 日本國과 平等權을 保有한다. …」고 形式上 明示되었다 하지만 內容自體는 完全한 不平等條約이었다. 여기서 自主·平等이란 朝鮮에 대해 오랫동안 宗主關係를 가진 清國의 支配權을 認하고 清國에 대신하여 日本이 朝鮮을支配하기 위하여 표방한 것에 불과하였다 것이다.

IV. 大東合邦論

日帝의 植民主義 文化政策의 또 하나의 基調로서 大亞細亞主義 또는 大東合邦論을 들 수 있다. 日本에서 강경한 征韓論을 제창한 過激民權派에 敗退한 後 自由民權을 주창한 板垣, 江藤 등 自由民權派는 從來의 征韓論과는 다른 아세아諸國의 連帶 및 朝鮮과의 連帶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自由民權派의 連帶主義도 國權의 擴充과 海外侵略을 강조하였으므로 征韓論과 모순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과 征韓論이나 아세아連帶主義는 歐美烈強의 侵略에 直面하여 좌절감과 危機意識을 解消하기 위해 소위 「內安外競」의 政略으로 提起된 것이며 다만 征韓論은 朝鮮 및 기타의 아세아諸國의 征服에 의하여 歐美烈強에 대항하려고 한 데 대하여 後者は 아세아諸國과의 連帶에 의하여 列強에 대항할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連帶의 주창자는 日本을 아시아의 指導者로 보는 강력한 指導者 意識 또는 盟主意識을 가지는 동시에 清國은 頑迷·固陋하고 뜨 朝鮮은 東洋中 세일 頑固한 야만국이라고 멸시하고 따라서 이들 未開의 後進國을 指導하여 開明化로 유도하는 것은 이들에게 恩惠를 베푸

는 것이라는 恩惠論으로 비약시켜 그들의 内政干涉과 侵略은 合理化하고 있는 것이다.

「다루이후지요시」(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¹¹⁾은 白人種의 歐美列強의 아시아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黃人種의 아시아諸國을 단결해서 펼기하여야 하며 그것은 日本과 朝鮮이 對等한地位에 合邦하여 「大東」이라는 새로운 合邦國을 建設하자는 발상이었다. 自由民權派의 「다루이」가 朝鮮이 獨立國임을 認定하고 日本과의 對等한形式의 合邦을 주장한 것은 그의 獨創的發想 같기도 하나 실제로는 朝鮮侵略을 긍정하고 「朝鮮併合」의 觀念의 武器로 利用되었던 것이다. 「다루이」는 清國이나 朝鮮을 포함한 아시아諸國의 富強開明과 自主獨立을 實現하는 것은 白人의 侵略으로부터 아시아를 수호하고 동시에 日本의 安全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경우 朝鮮이 自主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朝鮮은 清國과 事大關係를 끊고 日本과 親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배후에는 朝鮮에 대한 清의 干涉을 비난하면서 日本의 干涉은 超어 놓고 肯定하는 모순이 내포되고 있으며 또 日本은 世界에서 가장 빛나는 國家인데 반하여 朝鮮은 比較가 안되는 弊等國이므로 兩國의 合邦은 日本의 利益이 되는 동시에 朝鮮에게도 最大的 利益, 恩惠로 생각하는 偏見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루이」의 大東合邦論은 當時 日本이 안고 있는 矛盾을 반영한 것으로 日本이 마침 清日戰爭에서 승리하여 아시아의 盟主의 地位를 차지하자 「大東合邦論」은 소위 「大東亞共榮圈」이란 名分으로 大陸侵略에 알맞는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 朝鮮合當時 활약한 黑龍會의 「우지다료해이」(內田良平)는 一進會의 李容九와 더불어 「大東合邦論」에 공명하고 그 취지에 立脚해서 韓日兩國의 「合邦」을 모의하고 그를 위해 强行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内田은 韓日「併合」의 方式이 大東合邦의 本來의 目標와 어긋나지 推進되며 連帶主義의 「合邦」이 아니고 侵略主義의 「合併」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데 日本政府를 비난·공격하는 촌극을 벌인 일도 있으나 설사 大東合邦論이 概念上 朝鮮의 自主, 獨立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日本의 大陸發展을前提하고 아시아大陸侵略의 先頭에 서서 朝鮮의 自主·獨立을 부정하고 이를 흡수하려고 하는 마당에 진정한 連帶가 成立할 수 없는 것이다. 「다루이」도 그의著書 「大東合邦論」의 再版本에서는 자기思想의 모순을 빠져 결국 朝鮮과의 對等한 형식의 合邦論을 부정하고 朝鮮의 멸망을 시인하여 朝鮮併合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11) �樽井藤吉, 「大東合邦論」(明治 26年初版, 43年 再版), 築摩書房; 旗田嶽, “日本人の 朝鮮觀”, pp. 5 ~69. 참고.